

## EDUCATION

#학습

#수능

#나의 성적 상승 비법



노현민  
(충남 호서고 3학년)

충남 호서고 3학년 노현민입니다. 4학기 성적이 마무리된 지금, 전 과목 학생부 성적은 1학년 1학기 2.7등급, 2학기 2.1등급, 2학년 1학기 1.8등급, 2학기 1.6등급이에요. 학생부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지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학생부 성적을 올려놓아야죠. 진학하고 싶은 분야는 제약이나 신약 개발이고요. 수학과 과학 교과는 성적이 많이 올랐지만, 영어와 사회 교과는 다소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수학과 과학 성적이 오르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의 성적 상승 비법 01

## 3등급이었던 <수학>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간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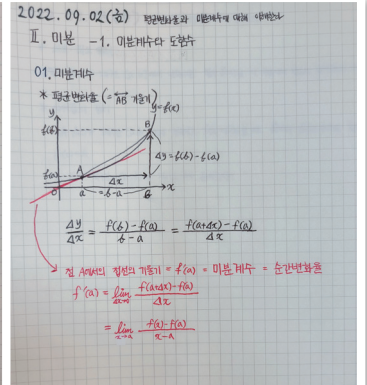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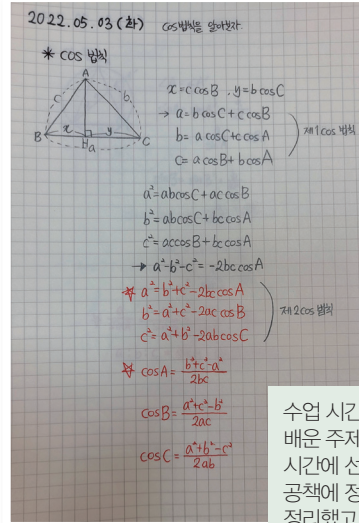
<내일교육>에 도착하는 독자 요청 중 빠지지 않는 게 '학습법' 기사예요. 다른 학생들은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번에 처음 만날 학생은 2024 대입을 치를 고3 노현민 학생입니다. 1학년 때 2.7등급에서 2학년 2학기 끝날 때쯤 1.6등급까지 성적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특히 수학은 3등급에서 1등급까지 가파르게 성적을 상승시켰답니다. 그의 수학 상승 비법과 공부법을 들어볼까요?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수학 성적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점프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 수학은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아쉬웠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실수도 잦았고, 서술형 문제에서 감점도 많이 받았어요. 1학년이 끝나갈 무렵 개념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해 자주 실수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공부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기초부터 확실히 알고 시작하자'는 쪽으로요. 수학이라고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기보다 교과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어떤 변형된 문제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성적 상승의 핵심 원인은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결국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것이기에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개념이나 문제 풀이를 잊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필기했어요.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잘 표시해뒀죠. 수업 후에는 학습 목표와 수업 내용을 정리해가며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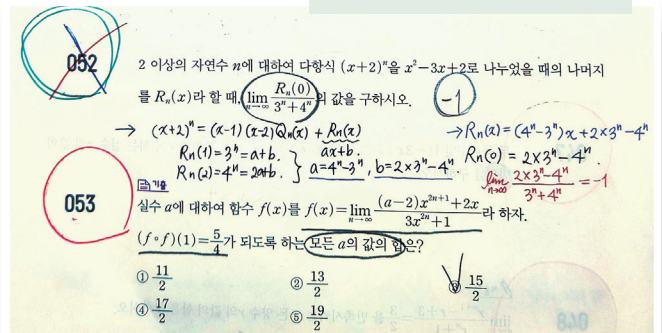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공책에 정리했다. 그날 배운 주제를 적고, 관련 개념이나 기억해야 할 것,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했다. 공책에 정리하면서 아는 건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했고, 모르는 건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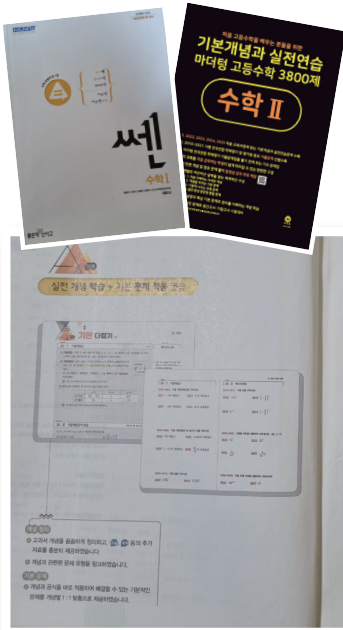
수학 공부법이 고1 때와  
어떻게 달라졌나요?

1학년 때는 '어차피 아는 내용이니깐'라는 생각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험 준비 기간에도 교과서 개념을 스스로 정리해본다거나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과정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내용이어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했어요. 시험 준비 기간엔 틀린 문제는 답지를 보지 않고 다시 한 번 왜 틀렸는지 풀어봤어요. 또 틀린 문제의 하단 여백에 풀이집의 풀이를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땐 모르겠다고 바로 답지를 확인하진 않았고요. 최대한 아는 공식이나 떠오른 발상들을 전부 써내려가며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풀리는 문제들도 꽤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는 해설지를 보고 꼼꼼히 익혀나갔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 때 풀이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 해설지의 풀이  
과정을 그대로 적거나 요약했다.



수학 문제집은 어떤 걸  
선택했나요? 그 문제집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학교 시험용으로는 <썸>을, 모의고사 대비용으로는 <마더텅>을 풀었어요.  
<썸>은 유형이 많고 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많아 문제를 풀면서 사소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선택했어요. <마더텅> 역시 다년간의 기출문제가 수록됐기에 출제 경향을 파악하거나 유형을 접하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썸>은 A, B, C 단계로 구성돼 있어 A와 B단계는 연습하며 풀었고, C단계는 복습용으로 풀었어요. <마더텅>은 2~3점 문제들부터 풀어보고 이후에 4점 문제에 접근했구요. 모의고사를 염두에 두고 <마더텅>을 풀었는데 내신에도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때 <마더텅>의 틀린 문제도 꼼꼼하게 다시 풀었어요.

하지만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나온 문제들을 꼼꼼하게 여러 번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수업을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하는 경우 배점은 낮더라도 교과서 문제는 꼭 나오니까요. 증명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문제는 잘 풀면서 교과서 문제나 배점이 낮은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기에 교과서 완전 정복은 학교 시험에 필수입니다!

학교 시험용으로는 <썸>을, 모의고사 대비용으로는 <마더텅>을 풀었다.  
<썸>은 유형별로 정리돼 있어 유형을 익히기 좋았고, 단계별 구성이라 연습과 복습을 하기 좋았다.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추천하고픈 공부법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엔 선생님의 제스처, 목소리 높낮이 하나하나 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집중하길 권해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자주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야'라든가 '나하고 수학은 안 맞아' 등 왜곡된 자기평가를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 유형을 알아내고 그에 맞는 적절한 풀이법을 찾아 풀어낸다면 수학만큼 짜릿한 쾌감을 주는 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풀리더라고요. @